법제처,
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

– 인천 테크노파크,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–



■ 법제처(처장 김형연)는 22일 인천 테크노파크를 방문해 테크노파크 원장 및 인천 지역 소재 사업체 등과 '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'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.

●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, 서병조 인천 테크노파크 원장, ㈜파블로 항공 허지성 과장 등 15명이 참석했다.

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천 지역 내 중소기업 운영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겪은 법·제도상 어려움을 들며 개선을 건의했다.

■ 주요 의견으로는,

●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기간이나 방법, 프로그램 등 제도 관련 사항을 보다 유연성 있게 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해달라는 의견,

※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 제8조(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), 제27조(과태료) 관련

● 무인비행장치(드론)의 야간·군집비행 승인 신청 시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절차를 간소하게 해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.

※「항공안전법」 제129조(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(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) 관련

■ 김형연 법제처장은 “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개선 과제를 함께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”면서,

● “제안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·검토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고,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법제처,
2019년도 제4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

– 김형연 법제처장,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위원에 위촉장 수여 –

■ 법제처(처장 김형연)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통일법제 관련 학계 및 실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'남북법제 연구위원회'를 개최했다.

■ 이번 연구위원회에서는 '남북한 정보통신기술(ICT) 교류·협력 방안'을 논의하고,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신규 위원 및 재위촉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.

● 이번 위원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해, 박정원 국민대 교수, 김용현 동국대 교수,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, 김광길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.







■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남북한 교류와 통일에 대비한 법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도에 설치된 자문위원회로, 북한의 법제도□정책 및 현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.

● 매년 5~6차례 개최되는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 국토교통·산업·과학기술 등 행정 분야별 남북법제 비교 및 분석을 비롯하여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 관련 법률적 준비과제 검토 등 여러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,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된 연구를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.

■ 김형연 처장은 “법제적 측면에서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”면서,

● “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통일에 대비한 법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폭넓은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